Where are you from?

글 · 김장언 미술평론가

비엔날레가 일부 큐레이터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고급 문화산업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문화와 경제가 전 지구적으로 획일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예술과 삶의 조건을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꿈꾸고 실천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이스탄불 비엔날레가 이러한 변화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그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를 확인해 보자.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렸던 〈제9회 이스탄불 비엔날레〉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몇 가지 우연에 이해서 이루어진 상황들 때문이다. 우선 상황이라는 것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협상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근 50여 년 넘게 터키가 보내온 유럽에 대한 짝사랑은 아이러니하게도 영국과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의 의제로 논의 되었다. 다른 상황은 전 지구적 문화의 획일화와 패권화되어 가는 미술제도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입장의 큐레이터 중 대표적인 인물인 찰스 에셔(Charles Esche)와 바시프 코르툰(Vasif Kortun)에 의해서 이번 비엔날레가 기획되었다는 것이고, 이들은 자신들의 비엔날레의 주제로 고전적인 '이스탄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터키의 유럽에 대한 짝사랑과 도전적인 두 기획자의 비엔날레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갈 무렵 아시아를 휩쓸었던 조류독감이 우연치도 않게 터키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유럽연합의 중심국가 중 한 곳인 독일에서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정치인이 수상이 되었다.

공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형식과 태도가 어떻게 현대미술이라는 것과 조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Paulina Olowska의 작업

왼쪽 페이지
인종과 종교의 갈등이 야기한 엄청난 학살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린이들의 합창, Johanna Billing의 Magical World는 유토피아에 대한 실재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들은 이번 〈이스탄불 비엔날레〉에 대한 어떤 맥락들을 생산해 주는 것일까.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형성해 왔던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도전들에 대해서 새로운 예술적 대안을 모색했던 미술의 또 다른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관성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원해 보인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다음 카셀 도큐멘타가 상당히 보수적 색채를 띨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어쩌면 두 기획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스탄불을 그토록 흥미롭게 만들었던' 전술(tactics)들이 유럽연합 가입을 생존조건으로 내건 터키 정치인들의 전략(strategy)에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흥분되던 상황과 조건들은 조류독감에 의해서 다시금 '우리는 안돼' 라는 제3세계적 운명론에 빠져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도 한다.

역동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프로젝트

이번 〈이스탄불 비엔날레〉는 이스탄불의 탁심(Taksim) 지구에 산재해 있는 7개의 베뉴(venue)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7개의 베뉴는 이스탄불이라는 물리적 도시를 탐색하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도시를 사유화하도록 하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비엔날레는 이 베뉴들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수평적 프로젝트들인 앙 루트(en route) 프로젝트, 네덜란드 에인트호벤(Eindhoven)의 반 아베뮤지엄(van abbemuseum)에서 열리는 〈에인트호벤이스탄불(eindhovenistanbul)〉 등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리고 동시대 터키 현대미술의 역동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부대행사 아닌 부대행사는 도시의 존재가 단순히 도시 내부만의 자생적 원리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관계와 내부의 역동적 움직임들의 다양한 만남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 같다.

이러한 기획자의 외형적 전시의 형태는 그들

이 주제로 내세운 '이스탄불'에 대한 해석에서도 기인한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이스탄불이지만 물리적 장소로서 이스탄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문화적 의미 혹은 도시가 갖는 문화의 위치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이스탄불로 대표되는 도시는 — 이제는 더 이상 제3세계의 도시라고 지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뉴올리언즈의 어떤 도시에서도 우리가 상투적으로 '제3세계적이다'라고 말하는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한 곳에서는 더욱 지독할 정도로 철저한 소위 말하는 '선진국형' 도시의 형태가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 다양한 맥락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 내며 삶과 예술의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스탄불에 대한 구체적인 시선에서부터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변화 속에서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담아가고 있는 어떤 유형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살아가는 인간 삶의 형식과 태도가 어떻게 현대미술이라는 것과 조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이 우리 삶의 조건들을 얼마나 더욱 흥미롭게 하는 지를 모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스탄불이라는 의미는 터키의 가장 흥미로운 도시라는 물리적 존재로서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방콕이나 서울 혹은 런던이나 파리와 같은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흥미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이것은 상상의 공간으로서 이스탄불일 수도 있다.

작가들 역시 구체적인 이스탄불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도시가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발견한 삶의 방식들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다. 이스탄불에서 평생 구두를 만들고 수선해 왔던 노인의 삶은 도시를 삶의 조건으로 체화한 소시민의 삶으로 읽어낼 수도 있으며(Mario Rizzi),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 맥락들이 향수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창조될 수도 있다(Daniel Bozhkov). 더욱이 이스탄불 혹은 터키의 구체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터키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맥락화되는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Michael Blum), 도시가 남겨놓은 흔적의 고고학을 통해서 도시의 형이상학적 의미들에 대해서 재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Nedko Solakov). 그리고 도시 노동자의 일요일을 묘사한 회화 속에서 정지된 삶의 한 순간을 확인하고 그것이 젠더화되는 순간을 기억할 수도 있다(Lukas Duwenhögger). 이러한 작업들은 구체적으로 터키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격변을 겪어온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이스탄불에 대한 발견은 일면 서울의 청계천이나 통독이후 변화되어 가는 베를린의 현재를 모색하는 작업, 그리고 카이로의 확장에 관한 기록들과 연결될 수도 있다(flying city, Axel John Wieder & Jesko Fezer, Hala Elkoussy). 또한 균질한 도시 자체 내부에서 다양한 놀이의 형식으로 그 도시의 근엄함을 해체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Ahmet Öğüt, Daniel Guzman), 도시의 근대적 기념비에 대한 성찰적 자기인식을 엿볼 수도 있다(David Maljkovic). 이러한 도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은 이스탄불이라는 구체적 도시의 조건들을 넘어 우리의 삶을 구성해 나가는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David Maljkovic의 작업을 통해 도시의 근대적 기념비에 대한 성찰적 자기인식을 엿볼 수 있다.

왼쪽 페이지
이스탄불의 구체적 역사를 통해서 터키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맥락화 되는 현장을 보여주는 Dan Persovschi의 작업

새로운 맥락들을 생산해 내며

이러한 도시의 문제는 정치 사회적 갈등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맥락들을 생산해 내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간다. 이 속에서 개인적 삶의 조건들은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되어 간다. 인종과 종교의 갈등이 야기한 엄청난 학살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린이들의 합창, Magical World는 유토피아에 대한 실재를 매우 은유적으로 보여준다(Johanna Billing). 크로아티아의 어린이들은 1968년 시드니 반즈(Sidney Barnes)가 부른 Magical World를 그들에게 낯선 언어인 영어로 합창하면서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 우리 삶의 조건 역시 그 어린이들의 알지 못하는 운명과도 같이 어떤 막연한 기대와 흥분 속에서 그래도 다시 불리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엔날레가 전 지구적으로 여행하는 '지적 직업군'인 일부 큐레이터들의 생존을 책임져주는 고급 문화산업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문화와 경제가 전 지구적으로 획일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예술과 삶의 조건을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어떤 대안을 꿈꾸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이스탄불 비엔날레가 이러한 변화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그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비엔날레를 통해서 그 움직임들을 확인 할 수 있는 어떤 미약한 움직임을 누군가 만날 수 있었다면 혹은 예술가들을 통한 움직임들이 아니라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그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으로 이번 행사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탄불로부터의 교훈'은 기획자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